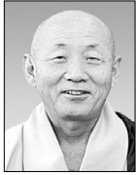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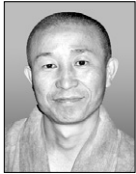


알주문



진불선원서 초청법사로 법문
前 조계종 포교원장 암도 스님은 6월 28일 부산 동구 범일동 시민회관 뒤에 자리한 진불선원 봉안법회에서 초청법사로 법문한다.



인드라망, 2009화엄광장 개최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표 도법 스님은 7월 3일 서울 인드라망교육센터에서 '新대승불교운동을 제안한다'로 1차 화엄광장을 연다.(02)576-1886



진각종 제62주년 창교절 기념불사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법사는 6월 14일 제62주년 창교절을 맞아 국내의 각 심인당에서 기념불사를 봉행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 창립 13주년
우리민족서로돕기 상임공동대표 영담 스님은 6월 23일 오후 6시 서강대에서 '창립 13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조계사, 故 노前 대통령 5재 봉행
조계사 주지 세민 스님은 6월 26일 오후 4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노前 대통령 장남 노건호씨가 참석 한 가운데 노무현前 대통령 49재 5재를 봉행한다.



제1회 나혜석 생가거리미술제
수원 수원사 주지 성관 스님은 6월 30일~7월 4일 '나혜석 생가거리 미술제 기념 지역 증진작가전'을 연다.(031)245-9670



불교미래사회학, 불교미래사회포럼
불교미래사회연구소 법안 스님은 6월 26일 전법회관에서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초청, 제5차 불교미래사회포럼을 개최한다.(02)725-4277



마주협, 재한몽골인 위한 나담축제
마주협 회장 보림 스님은 7월 5일 몽골근로자 500여 명과 함께 동대문 몽골포교당에서 재한몽골인을 위한 '제1회 나담축제'를 개최한다.



'연 소비자 모임' 발족식 열어
강화 선원사 주지 성원 스님은 강화군에 이어 6월 15일 김포시에서 '연 소비자 모임 발족식'을 열고 연 소비자장 확대에 나섰다.



불교방송 철야정진 5주년 기념법회
불교방송 포교사업단 안병록 단장은 7월 4일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BBS신요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 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02)705-5308

“한국불교학자 업적 알리기가 최우선 과제”

동국대 불교학술원 초대원장 로버트 버스웰 교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초대원장에 푸른 눈의 불교학자가 임명됐다. 불교학술원은 동국대 산하 불교학술기관인 불교문화연구원, 전자불전연구소, 동국역경원, 종책연구소를 하나로 통합한 교책 연구기관이다.

로버트 버스웰 교수(미국 UCLA·사진)는 6월 15일 오영교 총장에게 사명장을 받고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세계 불교학의 석학인 버스웰 교수는 1974년 송광사 구산 스님 문하에서 출가해 '혜명'이란 법

명을 받고 5년간 수행했다. 1985년 UCLA에서 <금강삼매경론>의 한국적 기원'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원호 스님의 <금강삼매경론>을 비롯해 지눌 스님 전집을 번역하는 등 한국불교 소개에 앞장서 왔다. 이런 공로로 1994년에는 불이상을, 2008년에는 만해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버스웰 교수는 최근 불교학자이자 한국학 전공자로는 처음 아시아연구협회(AAS,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회장을 맡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회장 취임 후 첫 행사를 한국 불교 주제로 기초강연하고, AAS 소개 브로셔 표지에 송광사를 신 등 지한파(知韓派)를 넘어선

애한파(愛韓派) 학자이다.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외국인 학자로서 동국대와 외국 대학을 연결하는 역할이 나의 가장 큰 소임이라고 여기고 있다"며 "외국의 불교학자와 한국 내 학자의 교류에 힘쓰는 것이 내 역할이고, 그것이 한국불교학을 발전시킬 기회"라고 주장했다.

버스웰 교수는 "한국불교학의 최우선 과제는 외국에 한국학자의 업적을 알리는 것"이라며, 한국 불교 주제의 국제학술행사 개최, 한국불교학자의 해외 학술행사 등 참여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을 비롯해 UCLA 교수, AAS 회장 등을 맡고 있다.



동국대에는 여름방학 3개월, 겨울방학 1개월간 체류하게 된다. "소임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명쾌하게 말하는 버스웰 교수가 동국대 불교학의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크다.

조동섭 기자

선학원 법진 스님 자비나눔에 1000만원 전달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은 6월 18일 한국불교역사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아름다운행(이시장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에 자비나눔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스님은 "조계종 행사에 언제나 마음을 내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민불협, 호국영령 천도제 봉행



민족통일불교종단협의회(의장 법혜)는 6월 13일 경남 양산 서창고 강당에서 제3회 호국영령 천도제를 봉행했다. 법혜에는 오근선 양산시장, 정재원 양산시의회장 등 기관장과 보훈가족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임연태 기자

호국광명사, 일면 스님 초청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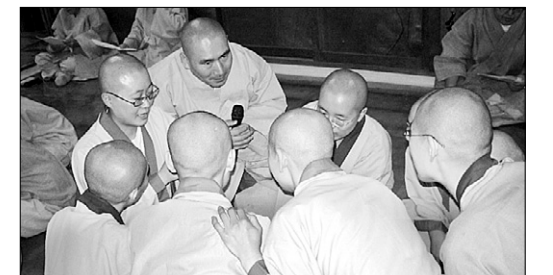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일면은 6월 12일 28사단 호국광명사에서 교구장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초청법회에는 일면 스님을 비롯해, 국방부 원광사 주지 종오 스님과 성보회 회원 등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낙산사, 양양군에 지원금 전달



낙산사주지 정래는 6월 17일 양양군을 방문해 이진호 군수에게 태백도민제전에 일원으로 참가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이광석씨 치료비 500만원 등 양양군 지원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노덕현 기자

운문사 강원서 '자기 긍정명상' 특강



천안 민일사 주지 마가 스님은 6월 12-13일 운문사강원 학인 스님 200여 명을 대상으로 자기 긍정명상 특강을 진행했다. 마가 스님은 이날 상념을 접목시킨 강의를 실시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손법선 대구지사장

“지역민과 상생 도모할 것”

재임 중간보고한 법주사 주지 노현 스님

임기 반환점을 앞둔 법주사 주지 노현 스님(사진)은 6월 16일 재임활동 중간보고를 통해 남은 임기 보다 활발히 지역사회에 참여할 것임을 밝혔다.

노현 스님은 "법주사는 지역사회 속에 역할을 극대화해 위상을 재정립하는 사회사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사회 생태 및 경제 보존개발 계획도 실시해 지역불자들과 상생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주사는 현재 관내 26개 초·중·고교생 60여 명에 총 10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으며, 스다문화 가족 초청행사 △보은 어르신 한마당 개최 △충북도민 안병 기원법회 △보은 유등제 등을 개최하고 있다.

노현 스님 임기 2년 동안 보수 불사도 대거 진행했다. 팔상전 계단 보수를 비롯해 대웅전에 방연계 도포작업이 이뤄졌으며 무이당 교량이 개축됐다.

노현 스님은 남은 임기동안 △템플스테이 문화관 건립 △달천 하도준설 및 정비 △탈골암-세심정 포장공사 △원통보전·진



해당 보수 △소방방제 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현 스님은 "사람은 불교 수행·신행처 일뿐만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 역할까지 지니고 있다. 현재 고립돼 있는 각 사람, 특히 대형 사람들이 지역민을 향해 문을 활짝 열 때 불교의 미래는 보다 밝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혜철 충청지사장

동국대, 신승훈씨와 손잡아

6월 10일 60억 규모 MOU 체결

동국대와 가수 신승훈씨가 한국 대중문화 산업을 위해 손을 잡았다. 동국대(총장 오영교)와 가수 신승훈씨가 설립한 도로시컴퍼니(대표 김용태)는 6월 10일 60억원 규모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콘서트 뮤지컬 제작 △한류콘텐츠 개발사업 △글로벌 OSMU 콘텐츠 공동개발 △에듀테인먼트 사업

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실무 진행은 동국대 학교 기업인 '동국아트컴퍼니'가 맡는다. 우선 가수 신승훈의 국내콘서트를 비롯해 연극·뮤지컬 등 공동제작과 연극 '햄릿'의 일본공연, 전래동화 DVD전집(한국어·영어·일본어) 공동제작, 예술아카데미 설립 및 운영사업 등이 진행된다.

조동섭 기자



원쪽 세 번째부터 신승훈씨, 오영교 동국대 총장

트컴퍼니'가 맡는다. 우선 가수 신승훈의 국내콘서트를 비롯해 연극·뮤지컬 등 공동제작과 연극 '햄릿'의 일본공연, 전래동화 DVD전집(한국어·영어·일본어) 공동제작, 예술아카데미 설립 및 운영사업 등이 진행된다.

조동섭 기자

배도용·구현옥 교수, 삼광한글학술상

배도용 부산외대 교수(사진 왼쪽)와 구현옥 동아대 외래교수(오른쪽)가 제22회 삼광한글학술상을 수상했다. 삼광한글학술상 운영위원회(위원장 화산)는 6월 13일 부산 삼광사에서 제22회 삼광한글학술상 시상식

을 개최하고 "배도용 교수는 한국어 어휘 의미의 지평을 한 단계 넓혔고 한국어 교육법 연구 등에 이바지 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운영위는 이어 "구현옥 외래교수는 지속적인 지역 말 연구와 다년간 외국인



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해 한국어의 위상을 널리 알려왔다"라고 수상 사유를 밝혔다. 조동섭 기자

조동섭 기자

자살영가천도재(무료)

우리 곁을 스스로 떠난 노무현대통령님, 연예인들 및 기업인 그 외 많은 분들, OECD중 일등자살공화국이란 오명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탓하기 전에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업이 많아 다음 생에도 과보는 계속 이어 집니다. 불보살님의 기도와 여법한 스님의 법력에 의한 천도와 유족님들이 지극정성으로 기도할 때 비로소 자살한 영가님은 모든 집착을 버리고 아미타불의 영접을 받아 극락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자살위기자라도 구하겠다는 목적으로 창건한 사찰 '묵언마을'에서는 한 많고 불쌍한 자살영가천도를 다음과 같이 무료 봉행하오니 자살영가와 인연이 있는 분이나,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종교에 관계없이 아무런 부담 갖지 말고 많은 동참 서원합니다.

일시: 불기 2553년(2009년) 6월 27일 10시 30분 ~ 14시까지
장소: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403-1
주최: 한국불교태고종 묵언마을
집전: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문화부장 상진스님
신청: (031)672-3108. 카페(다음,네이버) "묵언마을"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함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해몽 -

돌고래 슈퍼 에너지

공급원: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02)471-2356

상담전화: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